

보도 자료

(주)광문각출판미디어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광인사길 161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 제목 : 무유(Nosome)

| 김병윤 지음 | 신국판 392쪽, 양장제본 | 28,000원 | 북스타 |

‘21세기 신통섭은 말한다.’ “죽음은 없다”
오직 개체의 전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고로 ‘사후세계는 신화다.’

◆ 도서의 개요(약 1,000자)

무유(無有, Nosome) - 죽음은 없다, 개체의 전이만이 존재할 뿐
김병윤 지음 | 철학·종교 | 2025년 출간

“사후세계는 신화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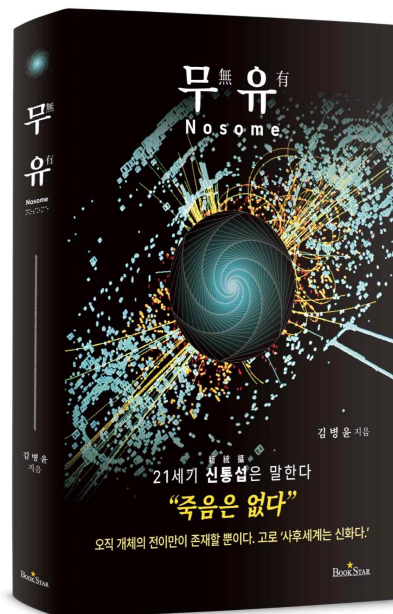
이 도발적인 선언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관념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무유(Nosome)는 기존 종교적 패러다임을 넘어, 과학과 철학이 조화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한다.

저자 김병윤은 50년 가까운 연구 끝에, 생명과 의식의 본질을 탐구해왔다. 그는 증조부모의 임종을 경험하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종교학과 자연과학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결론—‘모든 존재는 하나이며, 개체의 전이만이 있을 뿐 사라짐은 없다’—를 이 책에서 명쾌하게 풀어낸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의 경계를 허무는 신통섭(Consilience)의 정수

우주의 탄생에서 존재의 물리적·비물리적 구성,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 단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특히 기존 종교적 교리의 허구성을 분석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정한 ‘종교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유는 단순한 종교 비판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은 사랑과 공존을 통한 ‘지상의 천국’ 구축을 목표로 한다. 종교적 교리를 넘어, 과학적 발견과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인류 보



편적 질문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 종교개혁을 넘어 종교혁명으로

저자는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의 타락을 바로잡는 데 일부 성공했지만, 성서 속 수많은 허구와 조작을 분별할 만한 문헌적·과학적 기반이 부족했음을 지적한다. 이제는 종교 개혁이 아닌, 종교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안을 모색하며, 인류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공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사유의 출발점, 무유(Nosome)

무유는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존재와 소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신을 둘러싼 논쟁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명확한 논리와 학문적 근거로 풀어내는 이 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신화 속에 머물 수 없다. 무유는 새로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보도 자료

(주)광문각출판미디어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광인사길 161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 제목 : 무유(Nosome)

| 김병윤 지음 | 신국판 392쪽, 양장제본 | 28,000원 | 북스타 |

‘21세기 신통섭은 말한다.’ “죽음은 없다”
오직 개체의 전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고로 ‘사후세계는 신화다.’

◆ 도서의 개요(약 1,000자)

무유(無有, Nosome) - 죽음은 없다, 개체의 전이만이 존재할 뿐
김병윤 지음 | 철학·종교 | 2025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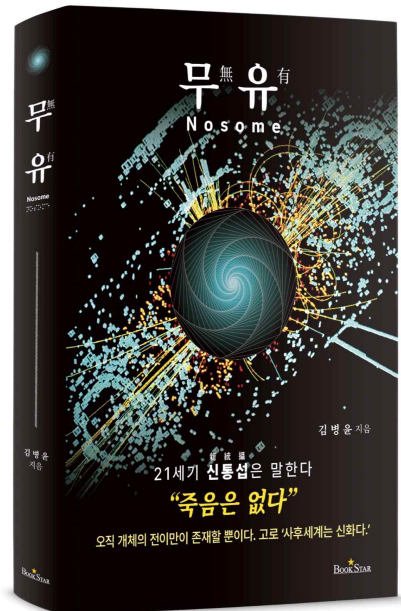
"죽음은 없다. 오직 개체의 전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책은 죽음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하며, 기존 종교적 패러다임을 넘어선 철학적·과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 《무유(Nosome)》는 인류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후세계의 개념을 전면 부정하며, 생명과 의식의 본질을 물리학과 철학, 종교적 담론을 아우르는 신통섭(Consilience)의 시각에서 풀어낸다.

사후세계는 과연 실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도 의식은 지속되는가?

저자 김병윤은 어린 시절 증조부모의 임종을 직접 목격한 이후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이후 철학과 종교, 자연과학을 연구하며 50년 가까운 탐구 끝에 도출한 결론은 하나였다. “사후세계는 신화이며,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 속에서 전이될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다. 저자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종교와 과학이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탐색하며, 전통적인 신학적 믿음과 현대 과학적 발견을 비교·분석한다. 특히 기독교의 교리 속에서 형성된 사후세계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조작되고 변형되어 왔는지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유의 틀을 제시한다.



신을 넘어, 과학과 철학으로 - 종교개혁을 뛰어넘는 종교혁명

《무유》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다. 종교적 전통을 재검토하고, 과학적 이론과 접목하며, 더 나아가 인간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하는 지적 탐험이다. 책은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진다.

- 신은 과연 실재하는가?
- 사후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고에 자리 잡았는가?
- 죽음 이후에도 개체의 본질은 유지되는가?
- 종교적 믿음과 과학적 사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저자는 기독교 개혁의 역사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다. 마틴 루터와 존 칼뱅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결국 그들 또한 성경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을 유지했고,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기독교 교리는 변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도그마가 되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을 넘어선 ‘종교혁명’은 무엇인가?

저자는 우리가 이제 기존 종교의 경계를 허물고, 철학과 과학이 결합한 새로운 사유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교리가 초월적 존재를 내세워 인간을 억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공존과 사랑의 철학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유(Nosome)’ - 존재와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다

책은 크게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존재의 본질과 시간·공간의 개념을 탐구하며 죽음 이후의 실재를 검토하는 **무유(無有, Nosome)**를 시작으로, 빅뱅 이론, 창조론, 진화론을 비교·분석하며 과학과 신학의 경계를 논하는 **우주의 탄생**, 그리고 자연철학과 현대 물리학을 통해 존재의 구조를 해석하는 **존재의 물리적 구성**을 다룬다. 이어서 의식과 영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영적 존재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존재의 비물리적 구성**, 죽음 이후의 상태를 전통적 종교관과 현대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는 **사후세계의 실재성**, 인위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의 본질적 통합성을 모색하는 **구분으로부터의 탈출**로 나아간다. 또한 인간 존재의 핵심 가치로서 사랑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연 속 이타주의 개념을 조명하는 **사랑**, 그리고 삶과 죽음의 본질을 ‘제로섬’ 개념을 통해 설명하며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영(零)**에 이르기까지, 총 여덟 개의 장을 통해 삶과 죽음, 존재와 의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 시대, 우리가 읽어야 할 책 - 《무유》가 던지는 메시지

《무유》는 단순한 종교 비판서가 아니다. 저자는 기존 종교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학적 세계관과 철학적 사고를 결합해 ‘인간 중심적 사유’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종교적·철학적 담론이며, 인류가 ‘모두 하나’라

는 인식을 통해 공존하는 길이 될 것이다.

과거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동굴의 우화’를 통해 인간이 진리를 깨닫기 어려운 한계를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기존 종교적 신념의 동굴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그 동굴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 틈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바라볼 수 있다. 《무유》는 바로 그 빛을 향해 가는 여정을 돕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진리를 탐구할 것인가?

기존 종교의 틀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종교를 뛰어넘어 철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유(Nosome)》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진리를 향한 도전이자, 인류 사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무유》.

그 문이 지금, 독자 앞에 열려 있다.

◆ 차례 ◆

(주)광문각출판미디어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광인사길 161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서문

1장 무유(無有, Nosome)

- 1.1. 진동
- 1.2. 시간과 공간
- 1.3. 무유와 불멸

2장 우주의 탄생

- 2.1. 빅뱅
- 2.2. 창조론
- 2.3. 진화론

3장 존재의 물리적 구성

- 3.1. 자연 철학자들의 통찰력
- 3.2. 구조적 비교
- 3.3. 발생학적 발달

4장 존재의 비물리적 구성

- 4.1. 초보적인 존재
- 4.2. 비포유류
- 4.3. 포유류

5장 전이계(일명 사후세계)의 모습

- 5.1. 사후세계에 대한 전통적 견해
- 5.2. 사후세계에 대한 과학적 단서
- 5.3. 개체의 전이

6장 구분으로부터의 탈출

- 6.1. 유일하지만 동일함
- 6.2. 인위성
- 6.3. 상향 진화

7장 사랑

- 7.1. 자연계의 이타주의
- 7.2. 사랑의 실천
- 7.3. 사랑의 원심력

8장 영(零)

- 8.1. 영(零)의 자연스러움
- 8.2. 인생은 제로섬 게임

8.3. 우리의 사명

끝맺는 말

별첨 1: 종교혁명 선언서

별첨 2: 로마 교황청과 기독교계에 대한 반박

별첨 3: 신통신통회(新統神通會)

◆ 저자 소개 ◆

(주)광문각출판미디어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광인사길 161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김병윤

1957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퍼듀대학교 MBA 과정을 졸업했다. 대우조선과 삼성 전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국제화 및 외국어 교육 팀장을 역임하였고 이후 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분교 및 호원 대학교에서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주)두레스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삼성신화 아직 멀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대한민국 판도라 상자를 열다』, 『정아에게 보내는 서른장의 편지』, 『영(靈)과 영(零)』, 『하나님과의 대화』 등이 있다.

◆ 그 외 자 료 ◆

(주)광문각출판미디어 & 광문각출판사 & 북스타 & 사이언스주니어 :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광인사길 161
TEL(代) : 031-955-8787 | FAX : 031-955-3730 | E-mail : kwangmk7@hanmail.net

■ 출판사 : 북스타

■ 총 페이지수 : 392페이지

■ ISBN : 979-11-88768-88-2 03200

■ 1판 인쇄 : 2025년 1월 9일

■ 1판 발행 : 2025년 1월 25일

■ 가 격 : 28,000원

■ 판형 : 신국판(152*225)

■ 기타 : 4도 인쇄, 양장 제본